

* 고려가요(속요)

고려가요 특징

고대로부터 내려온 민요에서 형성된 것으로, 구전되어 오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조선 성종대에 이르러 문자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향가가 쇠퇴하면서 귀족층의 한문학이 고려의 문단을 이끌어 가게 되자, 이와 상대적으로 평민층에서 새로이 나타난 노래가 고려가요이다. 이는 단순한 평민 문학이 아니라, 고려 시대 문학을 대표하는 진수라고 할 수 있으며, 고려가요가 조선 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남녀상열지사라고 하여 개작 또는 삭제되어 현재 전하는 것은 악학궤범에 4편, 악장가사에 8편, 시용향악보에 위 두 책에 없는 것으로서 2편이 전한다.

형식상 특징은 대부분이 분절식(주로 3·3·2조, 또는 3·4·4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듬이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경별곡', '청산별곡'에서처럼 3·3·2조의 율조가 많이 나타나고, 대체로 분절체이며, 후렴구 또는 조흥구가 발달되어 있으며, 순 우리말로 구전되다가 나중에 문자로 정착되었다. 어느 개인의 독창적, 창작품이라기보다는 구전되는 동안 집단적, 민요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내용상의 특성은 주로 향락적이며, 현세적이고, 대부분 남녀간의 사랑, 자연에 대한 예찬, 이별의 아쉬움 등 평민들의 숨김없는 인간성을 나타낸 것이어서 소박하고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였고, 남녀 간의 애정을 솔직히 표현한 작품이 다수 창작 되었으나, 조선조 유학자들이 남녀상열지사라 하여 문헌에 실지 않았으나 그 점은 조선조 정책이 송유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 짐작이 되나 작품성은 인간적 매력이 넘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주제는 풍류적이고 현세적이라는 점이 인간적이기는 하지만, 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는 우호적일 수 있으나 고급 문학의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 문제점이 지적될 수도 있다.

작가층은 문자를 가지지 못한 평민 계급이고, 문학사적 위치는 표현의 소박성과 함축성, 꾸밈 없는 생활 정서의 표현, 높은 문학성 등으로 시조와 더불어 우리 문학사의 대표적인 시가 양식.

의의는 적나라한 인간성과 풍부한 정서를 유려한 국어로 표현하여 국문학의 중요한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음악적으로 경쾌한 리듬을 살리는 기교 등은 고대 문학의 진수를 맛보게 한다.